



4 GM 몰락의 교훈

파업 → 임금인상 악순환 결국 파산

‘GM의 몰락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을 보는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세계 1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파산기업으로 추락한 GM의 경우와 닮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GM의 침몰을 ‘제 뒷만 챙기려는 강성 노조와 고비용 생산 구조’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GM의 몰락은 호황기에 부분별하게 확대한 복지정책이 근본원인이다. 1936년 전설적인 동맹파업 이후 퇴직 후 생활과 의료까지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완성해 한 때 110만명의 종업원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게 연간 60억달러의 의료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일삼았다. 겹겹이 파업을 앞세우는 노조 때문에 매년 임금을 올려주고, 퇴직자에게까지 복지 해

무분별하게 확대한 복지정책이 치명타 100년 우량기업 노사 싸우면 위기 초래

택을 제공하다 망한 것이다.
기아차도 파업이 연례행사가 됐다. 지난 1991년 이후 19년 연속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때마다 매년 직원들의 실질 임금도 올랐다. 기아차는 2002년 기본급 대비 8.6%를 인상한 뒤 ▲2003년 9.3% ▲2004년 8.3% ▲2005년 7.3% ▲2006년 6.0% ▲2007년 5.2% ▲2008년 5.6% 등 매년 임금이 상승했다.
금호타이어도 비슷하다. 지난 2004년 18.2% 인상한 뒤 ▲2005년 11% ▲2006년 12.6% ▲2007년 8% ▲2008년 7.6%를 올렸다. 5년간 평균 인상률만

57.4%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생산량은 22%, 수출은 21%가 줄었고, 금호타이어 측은 상반기까지 지 모두 1천4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아차는 올해 ▲기본급 8만7천709원(5.5%) 인상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금호타이어는 ▲임금 7.48% 인상 ▲2008년 추가 성과급 및 2009년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도 낮다. 기아차 공장의 1인당 생산대수는 34.9대로, 도요타(68.9대)의 50% 수준이다. 인력 운용의 효율성

을 나타내는 편성 효율도 기아차는 59%에 불과, 도요타(93%)에 못 미친다.

GM의 몰락은 기아차와 금호타이어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노사 관계가 반복되면 기업은 생산성 제고에 힘을 쏟지 못하고, 마침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GM은 한때 위기를 절감하고 노사관계 재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 수십 년에 걸쳐 고착된 대결적·거래적 노사관계를 타협적·생산적인 관계를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100년 기업 GM의 몰락은 어떤 우량기업도 자기 변혁을 소홀히 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노사가 싸우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빨라야 다음달 9일 이후 발사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지상검증용기체를 발사대에 세우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로호 발사 내달 9일 이후”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가 다음달 9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절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받아 발사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23일 “나로호 총조립에 앞서 마지막 단계인 발사체 1단의 최종 연소시험이 23일에서 27일 이후로 연기됐다”며 “1단을 개발해온 러시아 측이 1단 연소시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첫 날인 27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할 때 3일 뒤인 30일 시험결과가 나오고 이때 총조립에 들어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로호 총조립 후 발사까지 1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발사는 빠르면 다음달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발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지성 호우, 낙뢰 등 8월의 기상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9월에는 태풍이 잦아 경우에 따라서는 나로호 발사가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전파관리소는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발사 전 20분과 발사 후 20분 가량 고출력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발사 연기 후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들의 준비 상황은.

▲발사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나로호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이를 제외한 국내에서의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다. 다만, 발사연기의 사유가 된 발사체 1단 최종연소 시험은 러시아 측에서 수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해 국내에서 특별히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었다.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준비된 발사체와 발사대를 점검하면서 발사운영 연습을 계속 수행 중이다.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러시아에서 발사체 1단 최종연소시험을 완료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발사준비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 발생 여지가 최소화하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로호 발사 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우주발사체 발사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그중에서 발사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상요인이다. 바람, 낙뢰, 강수 등의 기상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발사가 가능하다. 세심히 준비해 발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나로호 발사 성공 확률은.

▲지금까지 우주선진국의 첫 번째 발사 성공률은 30% 미만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고 경험 많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발사 연기도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로호 발사 후 성공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나.

▲나로호 발사 후 9분이 지나면 과학기술위성 2호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게 되며 1차적으로 위성 궤도 진입 성공 여부는 이때 알 수 있다. 궤도에 진입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발사 후 약 13시간이 지나면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지상국과 교신하게 되는데 이때 나로호 성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필성기자 kps@연합뉴스

퇴임 고검장 5~6명 후보군 압축

검찰총장 후보자 이르면 주말께 내정...외부인사 영입 가능성도

내주께 고위직 후속인사 전망

최순실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사퇴하고 1주일여 간 진행됐던 인사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3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후보자의 내정으로 검찰을 떠났던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고검장 5~6명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권재진(56·대구·10기) 전 서울고검장, 김준규(54·서울) 전 대전고검장, 문성우(53·광주) 전 대검차장, 신상규(60·강원) 전 광주고검장, 문효남(54·부산·11기) 전 부산고검장, 이귀남(58·장흥·12기) 전 법무차관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이 옹호받지 않을지 우려되고, 이미 한 번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청와대가 낙점한다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내정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하는 형식으로 다음주 안으로 전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이뤄졌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인사가 이

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식의 인사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지난달 21일 내정된 전 전 후보자의 예기치 못한 사퇴로 한 달 남짓 후속인사가 미뤄졌고, 검찰이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다시 한달 정도 걸리면 검찰의 공전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 같은 ‘조기 인사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전 전 후보자와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 구도를 이뤘다가 ‘포기한 카드’가 됐던 이들 가운데 검찰총장 내정자가 나온다면 일단 악재로 친해한 검찰을 되살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기엔 부족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과거 이명재 검찰총장처럼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인물을 ‘구원투수’로 보낼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가리이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이들 6명 후보군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게 조직 안정이나 위기 돌파에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

지도층 모든 직군 외면

교수 1위 정치인 꼴찌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의무 이행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의뢰로 내놓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지수는 26.48점으로 합격선인 66점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대상이 된 직군 중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의무를 그나마 가장 잘 수행한 집단은 대학교수(45.5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언론인(40.67점),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30.68점), 검찰간부·대법관 등 고위법조인(29.34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고위임원(28.12점), 고위공무원(26.40점) 순이었다.

가장 도덕적이지 못한 집단으로는 16.08점을 얻은 국회의원·정치인이 꼽혔다. /연합뉴스

2009 전국투어 광주콘서트
TOUR IN GWANGJU
Soul groove
김건모

2009 8.29 (화) am 7시 30분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220-0541, 1588-0766